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일

## CUOMO 주지사, 뉴욕주 가족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세금경감위원회를 출범시키다

*새 위원회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재정 개혁을 토대로 하며 전 주지사 Pataki와 감사관 McCall이 주도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주택 소유자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의 재산세와 영업세를 줄일 방법을 파악할 뉴욕주 세금경감위원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세금 경감 권고는 주정부 지출 증가율을 2%로 억제하고, Medicaid 및 교육 지출에서 예산 자동 팽창 증식, 납세자들에게 수 백억 달러를 절약시켜 줄 연금 개혁 및 주정부 노동력 삭감을 포함하여 3년간의 책임 예산을 토대로 합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주지사의 2014년도 시정 방침 메시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6일까지 제출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시행된 책임 예산과 재정 개혁으로 인해 우리 주는 ‘세금 수도’라는 심리상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심리상태는 너무 오랫동안 기업과 가족들을 뉴욕주에서 몰아내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 세금경감위원회는 우리 주의 가장 존경받는 리더 두 분인 전 주지사 Pataki와 감사관 Carl McCall뿐만 아니라 다른 유자격 뉴요커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우리의 기업과 가족들이 직면한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야 우리 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뉴욕주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경감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를 내년의 입법 의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권고안을 금년 12월에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세금경감위원회는 뉴욕주를 더욱 여유가 있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주의 세법을 개혁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새 세금경감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출범한 세금개혁공정성위원회와 협력하여 법인세, 판매세, 개인소득세를 아우르는 주의 과세 정책을 종합 검토하여 현재의 세금 제도를 개선 및 간소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세금경감위원회의 창설은 3개년의 재정 건전성 및 책임 예산으로 뉴욕주가 주민들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산 절차에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3년에 걸쳐 취한 조치들:

- 주 지출 성장율을 2% 이하로 억제한 예산 3건;
- Medicaid 및 교육 지출에서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증가를 초래한 예산 자동 팽창의 종식;
- 다음 30년에 걸쳐 납세자들에게 약 800억 달러를 절약시켜 줄 계층 VI 연금 개혁;
- 주정부 인력을 137,000명에서 120,000명으로 삭감;
- 납세자들에게 약 4억 5000만 달러를 절약시켜 줄 책임 있는 주 노동 계약 3건.

이러한 재정 개혁을 토대로 주지사는 세금경감위원회에 주택 소유자, 임대인 및 기업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세금경감위원회의 권고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재산세 경감 및 영업세 경감안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과의 관계에서 뉴욕주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가족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조치는 뉴욕주가 너무 오랫동안 높은 세금 주로 비쳐져서 주의 경쟁력이 손상을 입고 기업과 가족들을 주에서 몰아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금 수도”라는 심리상태를 역전시키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은 그의 취임 첫 해에 주 역사상 최초의 재산세 상한 제도를 통과시킴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추가적 세금 경감 조치로는 중산층 세율을 62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춘 세금 삭감, 근로 가족을 위한 \$350 세액 공제 그리고 신생 기업과 새 비즈니스를 뉴욕주에 유치하기 위해 SUNY 캠퍼스에 면세 커뮤니티를 창설하기 위한 START-UP NY 이니셔티브 등이 있습니다.

세금경감위원회의 공동의장인 Carl McC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세금은 뉴욕주의 경제 성장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출을 통제하고 뉴욕주에 일자리를 가져오려는 주지사의 꾸준한 노력 때문에 뉴욕주는 몇 년만에 재정 형편이 가장 좋다고 전 주 감사관으로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 성공 위에서 중산층과 근로 가족들을 위해 세금을 낮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이 협조적 접근법을 통해 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협력함에 따라 이 과정에 속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세금경감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전 주지사 George Patak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진흥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Cuomo 지사는 올버니에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선출직 관리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 이 주의 주민들을 위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정신으로 그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같이 협력할 다양한 패널을 소집하였고, 우리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뉴욕인들의 세금을 낮추었습니다. 저는 그 그룹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러우며 위원회의 모든 동료들과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새 위원회에서는 전 지사 George Pataki와 뉴욕주립대학교 이사회 의장이자 전 주 감사관 H. Carl

McCall이 공동의장입니다.

세금경감위원회 위원들:

- George Pataki, 전 뉴욕주지사
- H. Carl McCall, SUNY 이사회 의장
- Dall Forsythe, 전 뉴욕주 예산국장
- Jim Wetzler, Deloitte Tax LLP의 이사 겸 전 뉴욕주 세무국장
- Heather Briccetti, New York State Business Council의 사장 겸 CEO
- Bill Rudin, Brown & Weinraub, PLLC의 선임고문
- Jack Quinn, Erie Community College 학장
- Denis M. Hughes, NYS AFL-CIO의 전 회장

위원회는 주지사의 2014년도 시정 방침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 소견 및 권고에 대한 보고서를 2013년 12월 6일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